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일자리 고용수 줄어... 4월에 17만5천개
- Bloomberg: 오늘 일자리 발표 핵심 내용은?

[미국 금융]

- Bloomberg: 국채 상승... 고용 부진 발표로 투자자들 금리 인하 기대
- Bloomberg: 애플 자사주 1천1백억 매입 발표... 미 사상 최대 규모
- CNBC: 오늘 일자리 발표후 금값 하락

[전기차]

- WSJ: 미정부, 중국산 흑연 포함 전기차도 2년더 세금 공제 연장

[물류]

- WSJ: 공급망의 핵심 사안은 '지정학적 위험'

[오일]

- CNBC: 유가, 3개월 만에 가장 큰 주간 하락세 기록 예상

[글로벌 경제]

- Bloomberg: 한국은행 총재, 연준의 긴축 유지에 '금리 인하 지연' 시사

[인공지능]

- WSJ: 온라인 쇼핑몰, 쇼핑 진작 위해 AI 활용한다
- TechCrunch: Microsoft, 미 경찰의 얼굴 인식용 Azure OpenAI 서비스 사용 금지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Microsoft, 해킹 문제 이후 보안 책임자 영입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U.S. Hiring Slowed to 175,000 New Jobs in April

미 일자리 고용수 줄어... 4월에 17만5천개

- 4월 미 일자리는 줄고 실업률은 올랐다. 그동안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강세가 주춤한 것이다.
- 오늘 금요일 연방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4월 미 일자리가 계절 조정치로 17만5천개 늘었다. 이는 30만개 이상을 보였던 3월보다 훨씬 작은 수치. 이번 일자리 축소가 고금리 압박에 따른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이코노미스트와 트레이더들은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 실업률도 3월의 3.8%에서 3.9%로 올랐다.

WSJ 기사

Bloomberg: Here Are the Key Takeaways From US Jobs Report for April 오늘 일자리 발표 핵심 내용은?

- 비농가 부분에서 4월에 17만5천개 일자리 추가와 실업률 3.9%로 상승 외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자리가 줄어든 부문은 레저와 환대산업, 건축, 정부직 부문이며 자동차 제조와 임시 고용 서비스도 마찬가지. 반면에 일자리가 늘어난 부문은 헬스케어, 운송, 소매 거리 부문이다.
- 주당 근로 시간은 34.3시간으로 줄어든 반면에 경제적인 이유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지난해 6월 2일 이후로 상승했다.
- 고용과 근로 시간, 수입을 전반적으로 특정하는 총 주간 페이롤은 3월과 4월에 변동이 없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Treasuries Soar as Traders Pull Forward Fed Cuts After Jobs Miss

국채 상승... 고용 부진 발표로 투자자들 금리 인하 기대

- 오늘 금요일 노동시장이 부진하다는 발표 직후에 투자자들은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국채가 상승했다. 투자자들은 당초 연준이 늦추리라고 했던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가장 민감한 2년물 국채의 수익률은 17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4.71%를 보이고 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 투자자들은 빠르면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두차례에 걸쳐 0.25%씩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Apple's \$110 Billion Stock Buyback Plan Is Largest in US History

애플 자사주 1천1백억 매입 발표... 미 사상 최대 규모

- 애플 이사회는 자사주 1천1백억 규모의 매입을 승인했다. 이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인데 애플은 지난 2028년도에도 1천억달러 규모의 자사 주식 매

입을 승인했었다.

- Interactive Brokers의 Steve Sosnick 선임 전략가는 “애플이 R&D나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현금이 필요한 이른바 성장주보다는 주주에 돈을 돌려주는 가치주가 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CNBC: Gold turns positive after U.S. jobs data

오늘 일자리 발표후 금값 하락

- 투자자들이 오늘 금요일 비농가 일자리 데이터의 여파에 주목하는 가운데 금값은 2주 연속 하락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 금 현물은 현재 온스당 2천3백6달러 84센트로 큰 변동이 없으나 이번주에 1% 이상 하락했다.
- 4월의 최고치 2천4백31`불 29센트이후에 1백20달러 하락했다. 금은 인플레이 해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고금리는 금에 대한 수요를 줄인다.

CNBC 기사

[전기차]

WSJ: EV Makers Get Two-Year Reprieve on Tax-Credit Restrictions

미정부, 중국산 흑연 포함 전기차도 2년 더 세금 공제 연장

-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세금 공제와 관련해 오는 2026년까지 중국산 흑연을 포함한 전기차에도 세금 공제를 7천5백불까지 연장토록 했다.
- 이에 따라 전기차 제조 업체들은 100%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생산과 판매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 당초 2022년 연방의회가 인플레이 감축법 관련해 전기차 세금 공제를 제공할 때 중국을 비롯한 일부 적성국가의 핵심 광물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배제하려고 했다.

WSJ 기사

[물류]

WSJ: Geopolitics Takes a Central Role in Supply Chains

공급망의 핵심 사안은 ‘지정학적 위협’

- 중국 등의 원자재와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및 수입 제한 확대, 수에즈 운하를 사실상 폐쇄한 후티 반군의 공격 등의 지정학적 장애물이 증가하면서 공급망이 복잡해지는 상황이다.

- 한 예로 일리노이주의 운송업체 Seko Logistics의 Brian Bourke는 “오늘날 공급망 관리자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정학적 위험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노스캐롤리나에 소재한 제조업체 소유주 Mark Boone은 공급 업체에 관한 질문에 “10년 전 같았으면 바로 중국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강철, 저가의 컴퓨터 기계, 반도체 및 무선 통신 시스템 등 Boone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
-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인상하거나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으로 인한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Boone을 비롯한 기업들은 공급업체를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자재비는 높지만 지정학적 위험이 낮은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공장과 컨택을 시도하고 있다.

WSJ 기사

[오일]

CNBC: Oil prices set for steepest weekly drop in 3 months 유가, 3개월 만에 가장 큰 주간 하락세 기록 예상

- 금요일 유가는 상승했으나 주간 단위로는 3개월 만에 가장 하락 폭을 기록했다. 수요일에 대한 불확실성과 높은 금리로 인해 OPEC+가 생산량을 계속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7월물 브렌트유 선물은 31센트(0.4%) 상승한 배럴당 83.98달러를 기록했다. 6월물 서부 텍사스유 중질유는 26센트(0.3%) 상승한 배럴당 79.21달러를 기록했다.
-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금리 상승이 세계 경제 성장을 억제할 것이라 우려하면서, 두 벤치마크 모두 주간 하락세를 보였다. 브렌트유는 주간 6.2%, 서부텍사스유는 주간 5.6%의 하락세를 보였다.

CNBC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Bank of Korea's Rhee Signals Rate Cut Delay as Fed Stays Tight 한국은행 총재, 연준의 긴축 유지에 '금리 인하 지연' 시사

-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 약세와 강한 경제 상황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 속에 나온 발언이다.
- 아시아개발은행 회의에서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질지, 미뤄진다면 얼마나 미뤄질지, 심지어 금리 인하가 이뤄질지 등은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4월 이후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 그는 미 연방 이사회가 미국 통화정책을 예상보다 더 긴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는 점, 그리고 최근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빨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Bloomberg 기사

[인공지능]

WSJ: Online Marketplaces Like eBay, Etsy Are Counting on AI to Supercharge Shopping

온라인 쇼핑몰, 쇼핑 진작 위해 AI 활용한다

- 이베이, 오티, 스레드 업 등의 온라인 쇼핑몰이 검색창에 AI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쇼핑객은 Chat GPT처럼 검색창에 문장만 제시하면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고, 심지어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상품까지 찾을 수 있다.
- 지난 4월 이베이는 사용자의 쇼핑 이력을 기반으로 엄선된 의상을 추천하는 'shop the look'이라는 AI 기반 기능을 도입했다. 올해 초, 오티는 선물을 준비하는 쇼핑객이 상대방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AI 기반 'Gift Mode'를 출시했다.
- 대화형 온라인 쇼핑 환경이 완전히 실현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쇼핑몰의 AI 활용이 판매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판매를 촉진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WSJ 기사

TechCrunch: Microsoft bans US police departments from using enterprise AI tool for facial recognition

Microsoft, 미 경찰의 얼굴 인식용 Azure OpenAI 서비스 사용 금지

-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경찰이 Azure OpenAI 서비스를 통해 얼굴 인식에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 수요일 Azure OpenAI 서비스 약관에는 미국 내 경찰들에 얼굴 인식을 위해 Azure OpenAI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보다 명확한 문구가 추가됐다.
- Azure OpenAI 서비스 전면 금지는 해외 경찰이 아닌, 미국 경찰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백오피스와 같이 통제된 환경에서 고정된 카메라로 진행되는 얼굴 인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TechCrunch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Microsoft Adds Security Chiefs to Product Groups In Wake of Hacking Woes**Microsoft, 해킹 문제 이후 보안 책임자 영입**

- 마이크로소프트가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책임자를 영입하고 있다. 기업이 여러 차례 심각한 사이버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후의 조치이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보 보안 담당 부책임자를 영입한다고 밝혔지만 새로운 임원의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 2015년 이래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임원으로 일해 온 Ann Johnson은 부 CISO로 임명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메일을 통해 Johnson의 역할이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보안에 대한 고객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월가 금리인하 전망 제각각...씨티 4회, BoA·HSBC 1회**모건스탠리 3회, 골드만·노무라 2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내놓았지만 뉴욕 월가 대형 금융기업들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은 여전히 제각각이다.

씨티그룹이 4번의 인하를 예측하는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나 HSBC 등은 1번만 내릴 것으로 보는 등 대형 업체들의 인하 예상 횟수가 1~4번까지 다양하다.

금융업체들은 저마다 나름의 근거를 갖고 인하시기와 횟수 등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신중한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또 이런 자신감을 얼마나 빨리 정책에 반영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